연세의사학 제26권 제1호(통권 제53호) 2023년 6월 Yonsei *J Med Hist* 26: 87-113 Jun 202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의학사연구소
http://dx.doi.org/10.35276/yjmh.2023.26.1.87

특집논문

영동세브란스병원과 서독 공공차관: 한국 의료문제 해결의 교차점

김영수*

Ⅰ. 머리말
Ⅱ. 영동병원 설립 계획
: 서독 차관도입과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Ⅲ. 영동병원 설립을 위한 파독 간호요원 관리 문제
1. 간호요원의 서독 파견과 귀국
2. 1977년 귀국한 파독 간호요원의 재적응을 위한 계획 마련
Ⅳ. 맺음말: 한국 현대의료의 현안 해결을 위한 초석을 놓다

Ⅰ. 머리말

1960-7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각종 산업 분야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발전은 지속된 반면, 산업화에 따른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농현상, 소득불균형이 가속화되었고, 빈곤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었다. 경제개발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위한 주택, 위생, 보건의료 등 기본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개발을 적극적으로 추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연구조교수, 의사학 전공, 한일근대의학사 전공

www.kci.go.kr

진하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천명했고,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병상을 증설하고, 농어촌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저렴한 의료제도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1] 그 결과, 병원과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환자 수의 급증에 따른 병원의 대형화, 의료설비 및 장비의 최신화가 진행되었다.[2]

위와 같은 경제 및 의료분야 성장의 이면에는 해외의 여러 원조기구가 의학교육과 의료분야에 지원한 무상원조가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해외에서 끌어오는 차관을 꼽을 수 있는데, 차관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족한 보건의료시설과 장비, 교육이 성장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950년대 초, 전후 복구 작업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의료원조는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분야가 성장·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3] 무상의료원조사업은 1970년대 초까지 이어지나, 이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의학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 원조가 아닌 차관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4] 1970년대의 의료차관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연세의료원은 독일재건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했고, 그 결실로 1983년에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병원[5]을 개원하게 되었다. 이때 차관제공국인 서독과 논의하기 위해 연세의료원이 마련한 자료는 병원을 개원하는 데에 있어서 중점 사안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병원 개원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의학백년』(1986)과 『영동세브란스병원 10년사』(1996)에 기술되어 있다.[6]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연세종합병원(영동프로젝트) 계획이 차관도입으로 인해 영동병원과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서독측이 차관을 제

1) 정다혜, 「서독의 대한(對韓) 개발원조와 1970-80년대 보건의료지원의 성격」, 『의료사회사연구』 10, 2022, 271쪽.
2) 대한감염학회편, 『한국감염병사 II』(군자출판사, 2018), 113쪽.
3)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39, 2015;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2015; 이경록, 「신촌 연세의료원의 건설에 관한 연대기적 기초조사」, 『연세의사학』 25(1), 2022.
4) 다양한 형태의 원조가 존재했지만, 대표적으로는 1970년대 초까지 주요 대학의 의학 분야에 지원해 준 China Medical Board(CMB)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5) 영동병원은 1985년에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2009년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개칭했다. 1983년 개원할 당시의 명칭은 영동병원이므로 본문에서는 영동병원으로 지칭하나, 논문 제목은 세브란스병원과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영동세브란스병원10년사편찬위원회편, 『영동세브란스병원10년사』(연세대학교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1996).

www.kci.go.kr

공하는 조건으로 귀국 파독간호요원[7]의 재취업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의료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지역의료사업의 강조는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요한 보건정책이기도 했지만, 서독이 해외에 차관을 제공할 때 중점을 둔 조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파독간호요원의 재취업 문제는 서독과 한국 두 국가 간의 특수한 사정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동세브란스병원 개원과정을 통해 1970-80년대에 차관 도입이 가져온 한국 현대 의료사업의 토대 구축과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될 것이다.

Ⅱ. 영동병원 설립 계획

: 서독 차관도입과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은 서울역 앞에서 신촌으로 자리를 옮겨 1962년[8]에 신축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 연세의료원은 병원의 노후화와 건물 구조 및 공간 배치의 문제로 세브란스병원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한지 100년이 되는 1985년에 맞춰 새 병원을 짓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 병원 건축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마침 1974년에 독일 연방공화국 수도인 본에서 개최된 한독정기각료회담에서 독일 정부가 파독 간호인력의 한국 내 취업을 위해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여 한국에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였다.

독일의 대한(對韓) 개발원조는 독일이 1952년 개발도상국 및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UN(United Nations)의 확대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

---

7) 독일에 파견된 간호 인력은 크게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을 아울러 간호요원으로 부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간호원은 성인, 소아과, 정신과, 수술실, 마취 및 중환자실에서 독일의 간호원(Krankenschwester)의 직종에 근무하는 한국 간호원 면허를 가진 간호원과 독일간호학교를 졸업한 독일자격 한국간호원을 일컫는다. 간호보조원은 성인, 소아과, 정신과 분야에서 독일 간호보조원(Krankenpflegehelferin)의 직종에 근무하는 한국 간호보조원 양성소를 졸업한 한국자격 간호보조원과 독일간호보조원학교를 졸업한 독일자격 한국 간호보조원을 말한다. 김조자, 「서독주재 한국간호요원의 발전을 위한 취업실태 조사연구」, 『대한간호』 14(2), 1975, 25쪽.

8) 의과대학 교사와 간호 기숙사는 1961년 9월 20일에,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1962년 6월 5일에 봉헌식을 거행했다. 정용서, 「세브란스, 신촌시대를 열다-사진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25(1), 2022, 144~149쪽.

www.kci.go.kr

램은 전쟁 복구에 목적을 두고 있었고, 주로 사회구성원 구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때 이루어진 개발원조는 전담부서 없이 관련 정부기구들의 협조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고,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외원조를 시작한 것은 1961년이었다. 이때 원조를 전담할 기구인 독일연방경제협력부(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 Zusammenarbeit)가 만들어지면서 개발원조의 전담부서를 통한 원조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때까지의 사업은 정부기구들의 협조에 의해 진행되었다.[9] 같은 해에 한국은 독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공식적으로 개발원조의 수혜를 받게 되었고,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의 형태로 자본과 기술의 유상원조를 받기 시작했다.[10]

다만 한국에서 공공차관이 의료시설 확충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 1969년 덴마크 국립은행이 지원하는 시도립병원 건설을 위한 차관 협정을 보건사회부가 실시한 것이 그 처음이다. 이후 1970년대 중반에 영국 등으로부터 서울대 부속병원 확충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차관이 도입되었고, 연세의료원은 그 다음으로 서독으로부터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차관을 받게 된 것이다.[11]

서독 차관은 지역사회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보건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의료시설 건립을 지원한다는 목적성[12]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차관을 제공받는 연세의료원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 문제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긴요 문제이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은 1975년 8월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독일정부가 제공하는 장기저리 차관 신청을 위해 관련 계획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영동지구 연세 종합병원 설치개요'(1975년 8월 16일)[13]이다. 계획서에는 연세의료원이 종합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병원을 영동지역에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9) 나혜심, 「독일의 대한개발원조사 연구: 미제레오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35, 2017, 128쪽.
10) 나혜심, 「독일의 대한개발원조와 한인 여성의 노동이주-개발원조 담론과 그 실체 사이에서」, 『독일연구』 28, 2014, 39~40쪽.
11) 차관협정안 참조.
12) 정다혜, 「서독의 대한(對韓) 개발원조와 1970-80년대 보건의료지원의 성격」, 270쪽.
13) 설치개요는 한글과 영문 문서 두 가지로 작성되었다. 한글은 1975년 8월 16일에, 영문(General information on Proposed Construction of A New Yonsei General Hospital in Young-dong Area, Seoul, Korea-"New Young-dong Hospital")은 8월 18일에 각각 작성되었다.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개요(가칭: 영동병원)」(1975년 8월 16일),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계획안(A가201090400046), 연세대학교 기록관 소장문서.

www.kci.go.kr

기술되어 있었는데, 설립 목적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던 의료전달제도의 체계화와 의료시설과 기자재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의사, 간호원[14]과 의료기사에 대한 최신 의료기술의 실기교육 실시와 자질향상을 통한 취업 문제 해결, 1970년대 중반에 정부가 서울지역의 인구 분산과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강남지역(영동, 잠실) 개발사업에 호응하기 위함 등이었다.[15] 설립 목적을 통해 영동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이유가 해당 지역에 지역보건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파독간호요원의 준비 교육과 실기훈련 및 귀국 파독간호요원의 재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관련 과정을 준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16]

구체적으로는 영동지역에 지역보건의료를 수립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건설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자 영동병원을 모병원으로 하고 여러 분원을 두어 영동병원이 의료보험조합의 모체가 되고, 영동, 잠실, 성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개업의에 대한 집단개업을 알선하고, 지역 내 보건지소, 보건소, 가정의, 지(支)병원, 모(母)병원 간의 환자추천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해외로 취업하는 간호원에 대한 준비교육 및 실기훈련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도 강조하였다.[17]

병원 설립에 관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종합병원 설립계획 개요에 관한 설명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후에 시작되었다. 1975년 10월 한독경제각료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독일경제협력성 한국문제 담당관 Dr. H. Obermueller 외 2명이 영동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의료원을 방문하였고, 그들은 이 자리에서 당초 경제기획원이 구상한 500만 DM의 장기저리 재정차관 외에 상업차관으로 1,000만 DM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처음보다 차관 조건이 개선되었다. 이듬해 강남구 도곡동 산 6번지 일대의 약 7천여 평의 부지에 대한 매입에 들어갔고, 1976년 5월에 독일 경제협력성 한국담당과장 Dr. R. Barthelt 등 3명의 관계자가 의료원을 방문하여 앞선 설립계획안에

14) 1987년 의료법 개정안에서 간호사로 변경되었으나, 해당 시기에는 간호원이 일반적인 용어였으므로 역사적인 맥락을 살려 간호원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15)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개요(가칭: 영동병원)」(1975년 8월 16일), 1쪽.
16) 서류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귀국한 파독 간호사의 신분보장과 재교육을 통한 양호교사 또는 보건호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계계획안」(1975년) 및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개요(가칭: 영동병원)」(1975년 8월 16일), 5~6쪽.
17)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개요(가칭: 영동병원)」(1975년 8월 16일), 3쪽.

www.kci.go.kr

대한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하였고, 다음 달인 1976년 6월 1일에 의료원은 경제기획원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병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였다.[18]

1976년 6월의 계획서는 전년에 작성된 계획서와 전체적인 골자는 동일하나, 한층 자세하게 영동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려는 의도와 설립목적, 방침 등을 기술한 것이다. 본격적인 "영동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먼저 계획서는 영동병원의 설립이 한국 보건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의료수가의 저렴화와 의료혜택의 국민적·지역적 보편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을 연세의료원이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이미 동 기관이 도시 및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당시 도시지역에서는 1972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와 연세의료원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연희지역 시민 아파트 및 주변의 영세민을 위한 시범적인 보건관리를 실시하고 있었고, 농촌지역에서는 1974년 6월부터 독일 선교기관인 개신교개발원조처(die Evangelische Zentralstelle für Entwicklungshilfe, E.V., EZE)의 원조로 강화군에 연세대학교 보건원을 수립하여 농촌 주민을 위한 저렴한 의료전달제도의 개발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강원도 원주시에 연세의대 부속 종합병원(원주기독병원)을 두어 10만 명의 원주 시민 및 인근의 탄광, 시멘트 공장, 발전소 등의 산업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관리를 실시하고, 무의면을 대상으로 하는 원주병원 이동진료반을 운영하는 한편, 간질환자를 치료·관리하고, 1974년 7월부터 인천 산업보건센터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등 한반도의 중심에 해당하는 경기도 및 강원도의 도시 및 농촌, 산업지역의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9]

이러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하여 영동병원을 개원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의료전달제도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영동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최종후송병원이 마련될 것이며, 무의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수가 저하와 봉사를 극대화하는 시범병원, 보건의료요원의 보수교육 실시, 서독 파견 간호요원의 교육과 귀국 간호요원에 대한 재취업 교육, 그리고 한독간의 학술교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20]

그러나 영동병원의 건립 추진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당초 연세의료원은 영동

1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병원 설립계획서』,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 1976년 6월 1일.
1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병원 설립계획서』, 1쪽.
20)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것. 영동세브란스병원10년사편찬위원회편, 『영동세브란스병원 10년사』, 46~51쪽.

www.kci.go.kr

병원을 500병상의 단일병원으로 짓고자 하였으나, 영동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정부보증의 공공차관에 사립대학 재단인 연세대학교가 사업주가 된다는 점과 공단지역 병원 건립이 시급함에도 수도권에 병원을 건립하는데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단일병원 건립계획은 난관에 봉착했다. 1976년 7월 1일에 제6차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1976년 11월 25일 보건사회부 장관이 영동병원 건립계획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1977년 1월에 의료차관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설립추진 계획안이 작성되었다.[21]

새로운 계획안은 기존의 계획서 중에서 재독 간호요원의 귀국 시 직업알선 및 생활안정책, 영동병원 위치의 타당성, 영동병원의 의료전달체계, 병원 관리, 병원의 재원조달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재독 간호요원에 대한 교육과 단일병원의 개원이 아닌 영동병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병원을 세워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영동병원은 기존 500병상 규모에서 200~250병상으로 축소하고, 성남시에 80~100병상의 종합병원 설치, 광주군과 용인군에 30~50병상 규모의 군단위 병원 설치, 영동과 잠실에 영세민을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 주안에 50병상 규모의 산업병원 설치, 광주지역 무의면에 2개 정도의 면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동병원은 이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최종 후송병원 역할을 하도록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조정은 영동병원의 설립이 도시, 농촌 및 산업지구를 연결할 뿐 아니라 제1차 진료에서 2, 3차 진료까지 포함하는 의료전달 시범모델이 되도록 발전시키고, 이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적용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22]

---

21) 『영동세브란스병원10년사』에는 1977년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독일재건은행 관계자가 내한하여 영동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보건사회부장관이 5백 병상 건립을 2백 50병상 규모로 축소하고 추가로 성남시에 1백 병상을 건립하도록 강력하게 종용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1977년 1월에 작성된 「영동병원 설립 추진 계획안(연세의료원 독일 의료차관에 대한 한독 합의사항)」에 이미 영동병원을 200~250병상으로 건축하고, 성남에 1백 병상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한독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의학백년』에 따르면, 병상 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이미 1976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영동세브란스병원10년사편찬위원회 편, 『영동세브란스병원10년사』, 51쪽; 「영동병원 설립 추진 계획안(연세의료원 독일 의료차관에 대한 한독 합의사항)」, 1977년 1월 14일, 영동병원 설립 추진계획(A가201090400040-3301), 1977년, 연세대학교 기록관 소장문서, 1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214쪽.

22) 「영동병원 설립 추진 계획안(연세의료원 독일 의료차관에 대한 한독 합의사항)」, 1977년 1월 14일, 1쪽.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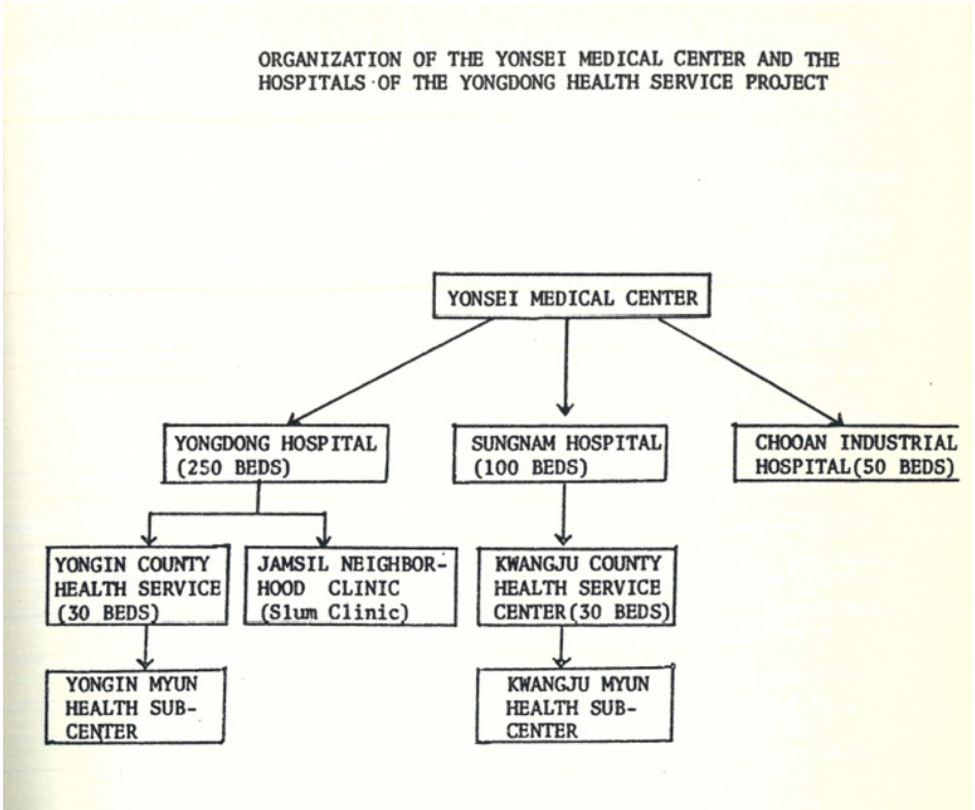

그림 1. 연세의료원 및 영동지역의 의료전달체계
출전: *The Yongdong Health Service Project*, Yonsei University, March 15, 1977, p.45.

이때 추진한 의료전달체계 구상은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구상이 반영된 것이었다. 연세의료원에서는 그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역보건사업에서 얻은 결과를 활용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1977년 당시 거제도에서 지역보건사업을 담당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토대를 만든 시블리(John R. Sibley)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블리는 거제에서의 사업이 종료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그에게 영동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제의했다.[23] 결과적으로 그가 영동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러한 시도는 연세의료원이 영동 프로젝트를 어떠한 의미를 갖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기획 방향과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고민은 차관을 제공하는 서독측이 지역보건의료의

23) 「이우주가 Sibley에게 보낸 서신」, 1977년 4월 18일, 영동병원 설립 추진계획(A가201090400040-3301), 1977년, 연세대학교 기록관 소장문서.

www.kci.go.kr

구축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7년의 '영동병원 설립 추진 계획안(1977년 1월)'에는 독일은행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관을 대출할 수 있도록 서독이 연세의료원에게 요청한 추가 서류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 크게는 일반사항과 기술적, 조직적, 재정적 측면에 관한 내용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사항은 영동지역 주민의 경제상황과 의료기관 분포, 의료보험실태, 공•시립병원과의 협조체계 등 영동지역의 현 의료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이 지역사회의 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자료에 관한 것이었다. 영동지역은 현재 강남 지역에 해당하지만, 197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이 추진되던 때에는 서울의 전형적인 변두리 지역의 하나였다. 당시 의료기관이 강북지역에 치중되어 있었던 터라 영동지역에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강남 지역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의 보건인프라 정비와 그 주변지역의 보건의료를 담당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은 의료기관의 명칭, 병상 수, 병원건축 및 설립계획안, 조직적인 측면은 병원 조직 및 관리체계, 재정적인 측면은 병원 건립에 필요한 내외 자본, 운영비, 치료건수, 병상이용율, 의료수가, 예상 병원수입 등 실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24]

그 결과 1977년 3월에 연세의료원은 서독이 요청한 상기의 내용을 담은 영동지역 의료사업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서독이 요청한 내용을 충실히 담은 영동병원을 최종병원으로 하는 강남, 성남, 주안, 용인, 광주 등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 병의원 및 전공과목, 질병양상 및 통계, 의료기구 배치 현황, 연세의료원과 영동지역의 의료기관 관계도, 영동지역의료사업의 개요, 지역 개업의 및 의료기관, 의료보험과의 연관성, 영동지역의료사업의 예산추정치 등이 기술되어 있다.[25]

의료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보건의료조사사업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독으로부터 요청받은 지역보건조사사업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충분히 도입한 병원 건설계획을 구체화해 나아가는 한편, 차관 제공을 위한 서류 작성도 진행되어 차관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했고, 이에 계획안과 함께 중재협정서, 특별협정서 등이 작성되었다.[26] 이후 1978년 4월 18~20일에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8차 한독

24) 「영동병원 설립 추진 계획안(연세의료원 독일 의료차관에 대한 한독 합의사항)」, 1977년 1월 14일, 부속서류 2, 1~2쪽.

25) *The Yongdong Health Service Project*, Yonsei University, March 15, 1977.

26) 「영동병원 설립 추진 계획안(연세의료원 독일 의료차관에 대한 한독 합의사항)」에는 연세의료원 독일 의료차관에 대한 한독 합의사항, 중재협정서, 특별협정서, 의료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독일재건은행과의 차관 및 사업협정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www.kci.go.kr

경제각료회의에서 독일정부가 연세의료원의 영동병원 설립안에 최종적으로 동의[27]한다고 밝혔고, 여러 차례 심의절차 과정을 거쳐 1978년 10월 20일 독일재건은행과 1,500만 DM(약 45억원)의 차관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영동병원과 그 주변 지역의 병원 건축이 시작되었다. 연세의료원이 영동지역에 병원을 신축하기로 구상한지 수년이 지나서 드디어 차관 도입절차가 완료되었다. 차관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리 2%로, 차관을 체결한 당해의 시중금리가 16.5%였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28] 이후 차관 사용에 따른 한국 정부의 행정절차와 차관 금액에 대한 담보 문제, 그리고 독일 용역단과의 계약체결 절차 등을 거쳐 1980년 5월 10일에 서울시 영동지구 도곡동에 250병상의 병원 건축 기공식을 가졌다. 영동병원은 1983년 4월 14일 개원했는데, 병원의 개원은 한국의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모델을 보여준 것이었다.[29]

III. 영동병원 설립을 위한 파독 간호요원 관리 문제

1. 간호요원의 서독 파견과 귀국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동병원 설립의 중요한 조건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모델을 세우는 것에 있었다. 이것은 한국과 서독 양측 모두 필요성에 합의하는 바였다. 이와 함께 서독이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또 하나 내건 것은 파독 간호요원에 대한 관리였다. 이는 1970년대의 한독의 인적교류와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조치로, 파독 간호요원의 사전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오는 간호요원의 적응 및 재취업 문제 등이 대두된 데에 따른 것이었다.

간호요원의 파독사업은 1950년대부터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196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정규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 서독으로 파견되기 시작하는데, 공식적인 파견은 1966년 1월부터였다.[30] 간호요원의 공식적인 파

27) 『영동지역 의료확충사업의 백서』, 기획조정실, 1982년 10월 14일, 10쪽.
28) 강남세브란스병원 30년사 편찬위원회 편, 『강남세브란스병원 30년사』(강남세브란스병원 홍보실, 2013), 18쪽.
29) 「영동프로젝트 8년만에 결실」, 『연세대학교의료원소식』 36, 1983년 4월 6일, 7쪽.
30) 서독 마인츠 대학 소아과병원 병동장으로 근무하던 이수길 박사가 서독의 여러 병원에서 근무할 간호원과 간호학생 파독을 위해 1965년 11월에 한국에 왔고, 한국정부와 서독 헤센주정부 노동청 사

www.kci.go.kr

견은 서독병원협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해외개발공사가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을 선발하고, 이들을 교육시켜 파견하는 형태[31]였는데, 예정된 수와 실제 파견된 수는 상이했다. 1966년에는 간호요원의 선발을 마쳤는데, 서독 정부가 "국내 수급이 미달상태인 한국 간호원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한국 간호요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태도를 변경하여 파독이 보류되었는 일도 있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는 불안정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32] 그러나 이후에도 양국의 필요에 따라 간호요원은 지속적으로 독일로 보내졌고, 1969년에만 약 900명이 출국했다. 이때까지 서독으로 건너간 간호요원은 2,300여명, 서독에 거주하는 간호요원은 1,943명 규모로 집계되었다.[33]

1970년대에 들어서서 간호요원의 파독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1970년에는 간호보조원 100명을 포함하여 300명 규모의 간호요원이 독일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서독 정부는 1971년부터 계약기간이 넘어 귀국하는 외국인 간호요원을 전원 한국인 간호요원으로 충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간호원 500명과 간호보조원 2,500명 총 3,0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파독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근로조건은 독일인과 같은 수준이었고, 고용기간은 3년, 출국 여비도 서독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34] 그 결과, 한국해외공사와 서독병원협회 측의 합의로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의 장기 파견협정이 맺어졌고,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총 11,000~12,000명 규모로 간호요원을 파견하는 계획이 마련되었다.[35] 197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간호요원 파독 계획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이의 교섭을 완결시켜 1966년 1월 3년 계약으로 간호원 128명과 간호학생 40명을 데리고 간 것이 그 처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코리언의 맥박-세계를 누비는 의지의 현장(13) 파독간호원들」, 『동아일보』, 1981년 5월 1일.

31) 해외개발공사에서 실시하는 선발요령과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간호원 면허증 소지자로 국내에서 최하 6개월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자로, 면접과 신체검사를 통해 선발 후 출국 전 384시간의 독일어 교육과 교양교육을 받게 되고, 출국 후 독일병원협회가 제공하는 약 1개월간의 독일어 교육을 수강 후 임지에 배치하였다.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개요(가칭: 영동병원)」(1975년 8월 16일), 3쪽.

32) 「간호원 파독 보류」, 『동아일보』, 1966년 12월 16일.

33) 「간호원진출호조-연내 450명 더 파독」, 『매일경제』, 1969년 11월 5일.

34) 서독정부는 독일병원협회에 1971년부터 매년 간호원 500명과 간호원 1명에 보조원 5명의 비율로 한국간호보조원을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보사부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수치는 실제 파송이 계획된 수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나, 신문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한다. 「간호원 300명 일주일내로 파독」, 『동아일보』, 1970년 1월 27일.

35) 기록에 따라 수치가 조금 상이하다. 「간호원 파독협정」, 『매일경제』, 1971년 3월 3일;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개요(가칭: 영동병원)」(1975년 8월 16일), 3쪽.

www.kci.go.kr

표 1. 한국 해외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와의 서독 파견인원에 대한 계획과 실적(단위: 명)

	파독 간호원수		파독 간호보조원수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971년	400	360	800	988	1,200	1,348
1972년	500	624	2,500	815	3,000	1,439
1973년	600	763	3,000	419	3,600	1,182
1974년	700	474	3,500	170	4,200	644
1975년	-	408	-	66	-	474
합계	2,200	2,629	9,800	2,458		5,087

출처: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개요(가칭: 영동병원)」(1975년 8월 16일),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계획안(A가201090400046), 연세대학교 기록관 소장문서, 3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병원 설립계획서』,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 1976년 6월 1일, 22쪽을 참고로 작성.

대규모의 파견계획이 진행되자 영동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독 간호요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영동병원 설립계획서에는 1기에 60명 정도(연간 240명)의 간호원을 3개월 동안 기숙사에 수용하여 서독에서 의학교육을 받고 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수진을 동원하여 간호용어에 대한 교육, 독일의 풍습과 교양을 가르치고, 실기훈련을 실시하여 자신감을 갖게 하고 동시에 독일에서 실시하는 4주간의 준비교육 기간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6] 다만 이 교육은 영동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동안 간호요원 파독이 중지되면서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간호요원의 파독사업이 중지되기는 했지만, 그간 파견한 간호요원 수가 누적되고, 파견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는 간호 인력의 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유자격 간호요원수와 거의 맞먹는 13,200명의 간호요원을 서독에 장기간 파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1970년 말 현재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11,835명의 간호원과 4,208명의 간호보조원을 합친 우리나라의 전체 간호요원 수인 16,043명과 거의 맞먹는 수였기 때문이다.[37] 게다가 1972년에는 한 해 동안 예상보다 많은 3,000명의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서독에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간호요원의 수급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38]

36)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개요(가칭: 영동병원)」(1975년 8월 16일), 5쪽.
37) 「간호원 해외로만 빠져 국내엔 태부족」, 『동아일보』, 1971년 3월 9일.
38) 「조노동청장·서독병원협 간호원 3천명 파독」, 『동아일보』, 1971년 12월 10일.

www.kci.go.kr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 파독은 1970년대 외자유치를 위한 '인력수출'의 대표적인 방식이었으나, 국내에 남아도는 노동력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파독 광부와는 다르게 국내 의료인력 수급계획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수급 계획상 국내 간호원은 가용인원보다 수요가 많았고, 간호보조원은 남아도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972년의 실적을 보면 간호원은 계획보다 더 많은 수가 파견되었고, 간호보조원의 파견은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임상경험을 가진 여성 노동력을 독일에 빼앗겨 한국의 의료가 위협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후에는 단기 교육을 받은 간호보조원을 더 많이 파견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39] 그러나 여전히 1973년도에도 간호원은 계획된 수보다 더 많이 파견되었고, 간호보조원의 파견은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여 파독 간호원의 인원수보다도 적은 인원만 파견되었다.[40] 한국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독일에서 단기 교육을 받은 간호보조원보다 정기교육을 받은 간호원을 요청하는 수요가 여전히 높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외파견및 국내취업
간호보조원훈련생모집
정부의 해외 인력진출(해외각국 병원취업)및 국내 수급계획에 따르는 성실 유능한 훈련생을 모집함
一、응모자격
1、중 고졸이상 18세~35세까지의 여자
2、해외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二、제출서류
一、소정원서 一통·사진 二매
三、접수기간
一九七二년一월五일부터一월二十二일까지
四、전형일시
一九七二년一월二十三일十시(각양성소)
五、기타사항
3、2、1、소정교육을 이수한 자격이있는 정원자는 국내취업및 해외파견을 희망함시는 보장함
해외(서독)진출을 희망하여 파견도무시는 월보수와 대우를받는다
한화 약11만원)를 받는다'
※서독은 국가간 협약에 의거, 단체 송출 (七四년도까지 三、二〇〇명)되며 양성소에서 훈련원 양성이 기타 미국·일본·가나다·스위스등지에 취업을 본 연합회신
4、학생들의 기숙사설비를 위한 기차 뚱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5、교육기간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한하여 책임을 선발함
6、학과 빠스회수권을 발급한다'
7、외비되어있음(대한·한독)
8、기숙사내에 수장도있음(체류면제한다 (독한간호보조원훈련원)
국가원조대상자는 수장도있음(체류면제한다
기타자세한것은 직접태원문의바라며, 공유임도 접수함 (안내서교부중)
사단법인 한국간호보조원양성소
연합회서울지부
보건사회부지정훈련기관

양성소명및 소재지 (가나순)		모집원
고려간호보조원양성소 서울서대문구중림동一二번지 (서울역앞 서부역앞)	☎3408 ☎9692	120명
대한간호보조원훈련원 서울중구을지로六가一八의二三二 (을지예식장건물4、5층)	4887 ☎4889 3764	360명
서울간호보조원훈련원 서울종로구미아五동八二의三 (미아수퍽옆)	☎9511 ☎5884 ☎1006	180명
수도간호보조원양성소 서울중구남대문로五가一〇의一 (서울역남대문사이퍽 시청뒤장옆)	☎4600 ☎4600 ☎4803	120명
한독간호보조원양성소 서울영등포구노량진동一五의一三 (유한양행옆중계소하차)	☎0747	180명

그림 2. 간호보조원 훈련생 모집 광고.
출전: 『조선일보』, 1972년 1월 12일 광고기사.

한국의 해외인력송출은 비단 서독뿐만 아니라 구주지역, 미주지역(괌 포함), 베트남, 일

39) 나혜심, 「독일의 대한개발원조와 한인 여성의 노동이주-개발원조 담론과 그 실체 사이에서」, 54쪽.
40) 서울 각지의 간호보조원양성소가 단기 간호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양성소를 졸업하면 서독에 파견되거나 국내 취업이 가능한 것같이 과대광고를 했다고 하여 정부는 1973년부터 양성소의 정원을 축소시켰다. 또한 1974년부터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무자격 간호업무종사자에게 간호보조원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도 펼쳤다. 「간호보조원양성소 정원 줄여」, 『경향신문』, 1973년 9월 24일; 「무자격간호보조원 구제」, 『조선일보』, 1974년 1월 27일.

www.kci.go.kr

본, 동남아 등 전 세계에 걸쳐 있었고, 1972년 12월 현재 해외파견인력의 총수는 23,231명에 달했다. 그중 서독에 파견한 수는 1,728명이었는데, 이는 원래 계획했던 3,400명의 51%에 해당하는 수치에 불과했다. 그러나 파견을 계획한 인원수 중에 2/3을 차지하는 2,400명은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으로, 평균 파견수보다 높은 61%에 해당하는 1,657명이 파견된 것으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는 많은 의료 인력이 파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41] 이는 한국에서 파견된 간호인력이 본래 파견될 임지뿐만 아니라 점차 독일내의 기존 간호인력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파견되는 등 그 활동영역을 넓혀갔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기존에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의 간호요원만 고용해오던 서독 남부의 헤센주 등 3개 주에서 한국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례를 들 수 있다.[42]

이처럼 1970년대 초에는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에 대한 서독 정부의 지속적인 파견요청과 파견지역의 확대로 당초 계획보다 많은 간호원이 파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파견된 인원의 총수를 살펴보면 간호보조원을 중심으로 그 수가 감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70년 이래 서독의 노동시장 악화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여 간호요원의 파독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서독의 의료시장의 변화로 병원의 본래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군소병원을 폐지하고 종합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기도 했다.[43]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정부가 간호요원의 대우 및 수당개선을 촉구하면서 독일인에게 간호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그 수가 증가한 것과 도시 생활비 증가로 인해 여성구직자가 증가한 것이 간호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간호원의 이직률은 감소했고, 미취업 혹은 타업종에 취업했던 간호원 자격증 소지자가 뒤늦게 간호원으로 취업하기를 원하게 되면서 한국인 간호요원의 파독 규모가 점차 축소되었던 것이다. 다만, 서베를린에서는 노동허가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었고, 한국 간호요원 중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장기취업이 보장되었다. 또한 5년 미만 근로자도 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기 때문에 파독 간호요원의 취업상황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

41) 「5천여만불 가득(稼得)」, 『매일경제』, 1973년 1월 10일.

42) 이는 한국간호원양성소연합회장 위찬호와 한독협회회장 이수길 등이 현지 병원관계자와 교섭을 벌여 이뤄낸 것이었고, 서독병원 당국에서도 꾸준히 구인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간호보조원 279명 파견요청」, 『동아일보』, 1973년 3월 24일.

43) 종래 병원 및 양로원의 성격을 겸한 '병원'을 병원과 양로원 기능으로 분리시켜 양로원의 간호원 수를 줄였고, 병원은 시설현대화로 간호원 수를 줄이는 추세였다. 강규숙, 「서백림(西伯林) 사회와 한국간호원」, 『대한간호』 17(3), 1978, 27쪽.

www.kci.go.kr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방에 따라 계약 연장이 거부되고, 타병원으로 취직이 어려워 귀국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5년 미만의 간호요원의 계약 연장은 어려워졌다.[44] 이처럼 전반적으로 독일의 노동시장이 악화되기는 했으나, 파독 간호요원은 서독에서의 경험을 버리고 바로 귀국했던 것 같지는 않다. 독일에 체류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남아있었던 데다가 서독에서 한국인 간호요원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결혼문제가 아니면 귀국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서독으로 돌아가서 취직하는 것은 어려웠고, 돌아와서도 적절한 취업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귀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45]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파독 간호요원이 한국으로 귀국했을까? 1974년 현재 서독에 파견된 간호요원의 총수는 서독 간호원 수의 44%에 해당하는 약 6,700명이고, 이들은 서독 전 지역의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450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46] 간호원의 급여는 1,400 DM(월 22만 4천원), 간호보조원은 658 DM(월 10만 5,280원)이었는데, 간호원의 봉급은 독일 정간호원과 똑같은 액수였고, 독일의 중견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정도였다.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고, 3년 계약이 만료되어도 병원으로부터 연장 요청을 받고, 혜택조항이 삽입되는 등의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니 대부분 2차까지 연장하였으므로 파독 간호요원의 수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47] 다만,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결혼문제, 가족 초청문제 등 문제가 산적해 있었고, 현지 영사관 등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등 현지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48]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1975년도에 2천 명의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을 서독에 취업시키고자 준비했다. 그러나 서독측이 불황을 이유로 파견요청을 하지 않아서 1976년부터는 간호요원의 파독은 중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9] 이후 계약이 완료되는 간호요원이 순차적으로 귀국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르면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귀국 러시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44) 강규숙, 「서백림(西伯林) 사회와 한국 간호원」, 27쪽.
45) 강규숙, 「서백림(西伯林) 사회와 한국 간호원」, 28쪽.
46) 한국에서 파견된 간호인력의 총수는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을 포함하는 수로 보이나, 기사 중에 서독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간호원으로 기술하고 있다. 신문기사의 서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본문에는 서독 '간호원'으로 기술하였다. 「고독한 서독의 한국간호원」, 『조선일보』, 1974년 9월 7일.
47) 「고독한 서독의 한국간호원」, 『조선일보』, 1974년 9월 7일.
48) 심지어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 싸울 경우, 정신병환자의 진단이 내려져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고독한 서독의 한국간호원」, 『조선일보』, 1974년 9월 7일.
49) 기록에 따라서는 1973년도에 파독이 중단되었다고 기술하기도 하는데, 1975년의 실적이 존재하므로 1975년까지는 파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간호원 파독에 난관-불황으로 요청 안해」, 『매일경제』, 1975년 11월 17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병원 설립계획서』, 22쪽.

www.kci.go.kr

이 시기는 한국에서 의료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병의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시기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간호요원의 해외진출로 외화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국내의 '무간호원촌'을 해소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취업계약을 만료하고 돌아오는 간호요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1970년대 중반부터 마련하기 시작하였다.[50] 1975년경부터 파독 간호원의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보고가 진행되어 그들이 파독을 선택한 이유, 만족도, 학력, 나이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파독 간호요원의 총수는 6,124명(간호원 3,413명, 간호보조원 2,711명)으로, 그들은 경제적인 목적, 해외여행, 더 많은 공부목적, 막연한 동경심 등의 이유로 파독을 선택했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많았으며, 체류 기간이 길수록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학교, 간호고등학교, 보조원양성소 출신 등이 서독에 파견되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서독에서의 생활은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51]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에 간호사는 약 2만 5천 명(파독간호원 7천명)으로, 직능별 직업여성 중 미용사, 교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할 정도로 수가 많았으나, 취업률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52] 게다가 귀국한 파독 간호요원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파독 후 귀국한 간호요원에 대한 직장 상담은 꽤 활발히 진행되었다.[53]

1977년 11월 서독정부가 외국신규근로자 고용전면금지조치를 내려서 더 이상의 신규파견은 없었고, 장기간 근무하던 간호요원도 계약이 종료되면서 1976~77년도부터 간호요원의 본격적인 귀국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독에서는 한동안 파독 간호원을 대상으로 고용기간 만료 후에 계속 취업하거나, 타업종으로 전환[54]하기 위해 체류연장신청을 할 경우, 그들을 특별히 고려해주는 조치가 취해졌다.[55] 상당수는 한국에서 재취업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귀국을 망설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현지 적응을 못했거나 다양한 이유로 돌아오는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간호요원의 국내 고용에 대한 본격적

50) 「간호원 해외 진출 재평가작업 활발」, 『매일경제』, 1975년 4월 3일.
51) 「파독간호원의 「만족도」」, 『매일경제』, 1975년 5월 26일.
52) 「취업률 낮은 여성의 전문직」, 『동아일보』, 1975년 11월 25일.
53) 「파독 인력 뒷바라지-세미나 열어 정보제공도」, 『조선일보』, 1976년 6월 19일.
54) 1976년부터 서독의 아카데미크란센호프는 전경련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서독정부의 지원을 받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광부, 간호요원의 전직훈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간호요원의 경우 주로 전문비서직교육을 받았다. 「전경력 계약만료노동자 전직훈련」, 『매일경제』, 1976년 4월 20일.
55) 「파독간호원 고용기간 만료 후 취업·체류연장 가능」, 『매일경제』, 1978년 8월 29일.

www.kci.go.kr

인 준비를 해야 했고, 파독간호원의 국내 취업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했다.[56] 다만 이때 한국의 상황은 간호인력의 공급이 초과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취직이 어렵지는 않았다. 대신 간호요원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치하고, 무자격 간호요원을 일소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했다. 따라서 귀국 파독간호요원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57]

2. 1977년 귀국한 파독 간호요원의 재적응을 위한 계획 마련

1970년대 후반은 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의료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시기였다. 새로운 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실력 있는 의료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파독 간호요원의 귀국과 맞물리기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적절한 배치는 한국 의료계의 상당히 중요한 당면과제였다. '영동병원 설립추진계획에 관한 추가보고서(1977)'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보고서는 1977년 1월에 영동병원 건설 예비조사단이 내한하여 영동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작성된 것인데, 보고서에는 1) 재독 한국 간호원의 귀국 후 직업적, 사회적 재적응을 위한 계획, 2) 영동병원 위치의 타당성, 3) 영동병원 담당지역의 의료전달체계, 4) 영동병원 관리체계, 5) 영동병원 자금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58] 이 중에서 서독이 차관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파독간호요원의 귀국 후 취업 및 사회 적응에 관한 사안이 새롭게 지어질 영동병원의 실무적인 사안과 더불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연세의료원 영동병원 설립 기획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간호요원의 파독이 중단된 1970년대 중반부터 귀국하기 시작한 파독간호요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59]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당시까지 총 9,350명(간호

56) 「코리언의 맥박-세계를 누비는 의지의 현장(13) 파독간호원들」, 『동아일보』, 1981년 5월 1일.
57) 「횡설수설」, 『동아일보』, 1977년 12월 7일.
58) 「영동병원 설립추진계획: 추가보고서(1)」, 1977년 1월, 영동병원 설립 추진계획(A가201090400040-3301), 1977년, 연세대학교 기록관 소장문서.
59) 보고서 작성을 위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모임 외 4인, 「파독 귀향 간호원 취업 실태조사-연세의료원 영동병원 계획을 위한」, 1976; 전산초 외 2인, 「서독 주재 한국 간호요원(간호원, 보조원)의 취업실태연구」, 대한간호협회, 1975; 김조자, 「서독 주재 간호요원의 발전을 위한 취업실태조사연구」, 『대한간호』 14(2), 1974; 유조진 외 1인, 독일 연방 공화국 정부 조건위생기관에서 근무하

www.kci.go.kr

원 5,567명, 간호보조원 3,883명)이 3년 계약으로 서독에 취업을 했으나, 귀국한 간호원 수는 소수이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어느 기관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즉, 파독 간호요원은 예상보다는 적은 수가 귀국하였지만, 귀국 후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의료인력이 필요한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취업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귀국 파독간호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요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크게 귀국 후 취업 기회의 결여, 국내 취업 불만족, 서독에서의 경험이 국내 취업 및 개인생활에 주는 어려움, 귀국 후 재적응을 돕는 기관 또는 조직체의 결여 등이었다.[60] 먼저 귀국한 파독간호원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귀국자 중 약 53%는 취업을 했으나, 미취업자중의 70% 이상은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취업은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현상은 서독에서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귀향하지 못하거나 서독 내의 취업 연장이나 제3국 취업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조사에 따르면 재독 간호요원의 50%만이 귀국 의사를 밝혔고, 그중에 20%도 안 되는 수만 귀국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했더라도 보수, 근무환경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와 취업을 못한 수를 합치면 83%에 달했기 때문에 귀국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귀국 후의 대우에 따른 상실감도 상당히 컸다. 귀국을 하더라도 서독에서의 경력을 전부 인정받지 못하고, 간호전문 영역에서 독자적 기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서독 진출로 인해 다른 취업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서독에서의 취업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자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서독에 취업할 때에는 해외개발공사와 같은 취업알선 또는 준비기관이 있었지만, 귀국한 후에 직업적, 사회적 적응을 도와줄 관계기관이 부재했다는 점이었다.

영동병원 설립 기획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 영동병원을 파독 간호원의 귀국 후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삼고자 하였다. 영동병원에서 계획한 것은 영동병원이 한국과 서독의 국가적 이익에 참여해 온 간호요원이 귀국한 후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직업적, 사회적 재적응을 돕는 모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위에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획, 수행,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는 외국인의 문제점-한국 간호요원을 중심으로, 『KIEL』, 1975.

60) 「영동병원 설립추진계획: 추가보고서(1)」, 1977년 1월.

www.kci.go.kr

것이었다. 이것은 간호요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귀국하지 않거나, 제3국으로 이주하여 간호 인력이 유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한국 내에 숙련된 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었다.

구체적으로 간호요원의 한국 사회 재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그들이 취직하려고 할 때 서독에서의 취업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간호영역에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서독 진출로 인해 국내의 취업 기회가 상실된 것에 더하여 보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 귀국 파독 간호요원의 재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2) 재취업을 위한 단기훈련과정, (3) 전문직업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4) 재취업 기회 제공 및 알선이었다.

위원회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귀국 파독간호요원의 과반수 이상은 국내에 재취업하기 위해 간호전문분야, 병원 내 간호활동, 간호행정관리 순으로 재교육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취업분야를 확정하고, 취업에 관계된 한국 사회 제반사항과 절차를 알고, 한국 종합병원의 일반적인 병원 및 간호업무에 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재적응에 대한 불안을 덜고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임상간호와 지역사회간호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귀국 파독 간호요원의 취업상태를 확인해보니 종합병원 및 보건소 근무가 많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도 종합병원(55%), 양호교사(17.5%), 보건소와 산업장(10%) 등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우선 영동병원에서는 영동병원 교육부를 통해 취업 전 2개월 동안 단기임상(기관)간호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그들에게 좋은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보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귀국 파독 간호요원의 전문직업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그 방안으로 보건간호과정과 지역사회건강 간호사과정이라는 특수교육과정을 간호대학과 협조하여 영동병원 교육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이는 귀국 파독 간호요원의 약 40%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에 구상한 과정이었다. 한국에서 3년제 간호학교를 졸업한 귀국 파독 간호원이 보건 간호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해 1년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해야 했는데, 영동병원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보건개발부를 통해 그들에게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대한 실제 경험을 갖게 하고,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자격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보건간호과정을

www.kci.go.kr

이미 이수하거나 대학과정을 마친 귀국 파독 간호원에게는 지역사회 건강간호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은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양질의 의료시혜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귀국 파독 간호원에게 취업 기회를 열어주어 직업적·사회적 성장과 안정을 주고, 농촌지역사회의 건강사업에 기여하도록 기획된 것이었다. 또한 산업체의 증가에 따라 산업장 간호라는 단기 특수과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61]

영동병원은 종합병원이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최종기관으로, 앞서 언급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자, 동시에 재취업의 공간으로 상정되었다. 따라서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자 하였다. 취업 방식은 기관간호와 지역사회간호로 나눌 수 있는데, 기관간호에는 영동병원, 연세의료원, 원주기독병원 및 의료원 유관기관이 해당되었다. 1977년 당시 계획 단계에 있던 영동병원(350명 환자 수용가능)의 간호 인력 고용 규모는 간호사 170명, 간호보조원 34명이었는데, 귀국 파독 간호요원 중에 영동병원 교육부 단기과정을 마친 자에게 우선적으로 영동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상하였다. 또한 연세의료원(700병상) 및 산하기관에 고용된 간호 인력은 간호원 320명, 간호보조원 60명의 규모였고, 원주기독병원(200병상)도 간호원 100명, 간호보조원 2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이직자가 생길 시에 귀국 파독 간호요원 중 영동병원 교육부 단기과정을 마친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연세의료원의 유관기관인 강남 시립병원(300병상)과 시립아동병원(250병상)의 설립이 계획되고 있었는데, 연세의료원은 이곳의 의료인력 공급 책임을 담당토록 교섭했고, 두 병원의 간호인력(간호원 270명, 간호보조원 50명)을 확보할 때 귀국 파독 간호요원 중 영동병원 교육부 단기과정을 마친 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간호는 영동병원 프로젝트 내 보건사업소에 그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강남, 성남지역 내 빈민촌 주민의 일차 건강관리를 담당할 보건사업소와 용인, 광주지역에 연차적으로 설립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담당할 군병원과 기타 보건사업소, 이동시술팀에 필요한 보건간호인력 및 간호보조 인력 채용 시에 영동병원의 관련 과정을 마친 귀국 파독 간호요원에게 우선권을 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1977년부터 시작되는 일차 진료 및 보건예방사업에 상당수의 간호 인력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면서 정부

61) 「영동병원 설립추진계획: 추가보고서(1) 중 재독 한국 간호원의 귀국후 직업적 사회적 재적응을 위한 계획」, 1977년 1월, 5~7쪽.

www.kci.go.kr

보건사업소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기용하도록 보건사회부 및 내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파독 간호요원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62] 이처럼 파독 간호요원의 재교육과 재취업 알선은 지역의료전달체계의 정점에 영동병원이 있었고, 이 병원이 주변 지역의 의료문제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귀국 파독 간호요원의 재적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는 한국과 서독 양국의 사회적 상황과 간호요원의 재취업에 대한 의지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했기 때문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동병원은 귀국 파독 간호요원의 직업적, 사회적 재적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기회 제공 및 알선 사업 등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당시 정부가 추진해야할 사업이었으나, 차관 도입을 계기로 영동병원에서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파독 간호요원 중 한국으로 귀국한 인원의 전체 규모가 잘 파악되지 않고, 영동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영동병원 및 유관기관, 보건소 등에 취업한 파독 간호요원 수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1983년 3월 1일에 영동병원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간호원을 대상으로 하여 서류전형을 진행하였고, 그 중 6명을 선발하여 개원과 함께 근무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파독 간호요원의 재취업을 위한 사업이 구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진행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병원에서는 독일재건은행 평가단의 지적에 따라 우수한 파독간호사가 영동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파독간호요원협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며 파독 간호요원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63]

위에 언급한 몇몇의 사례로는 파독 간호요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및 취업알선의 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영동병원 교육부에서 파독 간호요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 후, 영동병원, 연세의료원 산하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의 간호요원의 고용뿐만 아니라 1970년대 후반의 국가 주도의 보건사업에 필요한 간호요원의 고용까지 시야에 넣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간호 인력의 국내 재취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62) 「영동병원 설립추진계획: 추가보고서(1) 중 재독 한국 간호원의 귀국후 직업적 사회적 재적응을 위한 계획」, 1977년 1월, 3~10쪽.

63) 영동세브란스병원10년사편찬위원회 편, 『영동세브란스병원10년사』, 72쪽.

www.kci.go.kr

Ⅳ. 맺음말

: 한국 현대의료의 현안 해결을 위한 초석을 놓다

1975년부터 시작된, 영동지역에 새로운 병원을 짓겠다는 연세의료원의 바램은 약 8년 만인 1983년 4월 14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병원이 개원하면서 마침내 이루어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일차 진료 병원인 인천산업병원, 광주·용인 분원도 진료를 개시[64] 하며 영동병원은 1980년대 초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원래 새병원을 짓고자 했던 연세의료원의 계획에서 상당히 수정된 것이었지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꾸준히 진행해오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도, 수도권을 비롯하여 한반도 중부 지역을 총괄하며 한국 실정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모형을 연구, 개발했다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의료수요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서도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귀국하는 파독 간호요원을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영동병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간호요원의 재교육과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모델 제시와 실천, 그리고 파독 간호요원의 재교육 및 재취업이라는 당대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영동병원의 개원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그 배경에는 이전 시기의 무상원조와 다르게 의료분야에 해외 차관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의료분야에 새로운 추동력이 더해졌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차관 도입과 의료분야의 확대 및 성장을 고찰하는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룬 영동병원의 사례는 서독으로부터 공공차관을 도입한 첫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공공차관으로 의료기관을 개원할 경우, 당시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지역의료,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역점을 둘뿐만 아니라 병원 개원에 차관을 제공한 국가의 의료 상황과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영동병원의 개원에 이어 서독 차관을 받아 개원한 고대 구로병원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특징은 서독의 차관 지원의 조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료차관의 전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64) 「영동프로젝트 8년만에 결실」, 『연세대학교의료원소식』 36, 1983년 4월 6일, 7쪽.

www.kci.go.kr

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의료차관이 한국의 의료에 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의 각국 의료차관의 개별적인 특징을 살펴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서독에서 지원한 의료차관의 성격과 그것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국에서 한국에 제공한 의료차관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고, 어떤 사업을 위해 쓰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므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핵심어: 공공차관, 의료차관, 서독, 강남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영동프로젝트, 지역의료전달시스템, 파독간호요원

논문 투고일: 2023.5.15.	심사 완료일: 2023.6.9.	게재 확정일: 2023.6.9.

www.kci.go.kr

참고 문헌

1. 자료

『연세대학교의료원소식』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경향신문』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계계획안」(1975년),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계획안(A가201090400046), 연세대학교 기록관 소장문서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개요(가칭: 영동병원)」(1975년 8월 16일), 영동지구 연세종합병원 설치계획안(A가201090400046), 연세대학교 기록관 소장문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병원 설립계획서』,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 1976년 6월 1일

「영동병원 설립 추진 계획안(연세의료원 독일 의료차관에 대한 한독 합의사항)」, 1977년 1월 14일, 영동병원 설립 추진계획(A가201090400040-3301), 1977년, 연세대학교 기록관 소장문서

「영동병원 설립추진계획: 추가보고서(1)」, 1977년 1월, 영동병원 설립 추진계획(A가201090400040-3301), 1977년, 연세대학교 기록관 소장문서

「이우주가 Sibley에게 보낸 서신」, 1977년 4월 18일, 영동병원 설립 추진계획(A가201090400040-3301), 1977년, 연세대학교 기록관 소장문서

『영동지역 의료확충사업의 백서』, 기획조정실, 1982년 10월 14일

The Yong dong Health Service Project, Yonsei University, March 15, 1977

2. 연구 저서·역서

강남세브란스병원 30년사 편찬위원회 편, 『강남세브란스병원 30년사』(강남세브란스병원 호보실, 2013)

대한감염학회편, 『한국감염병사 II』(군자출판사, 2018)

범제강진경 교수 기념사업회, 『작은 거인 범제 강진경』(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020)

www.kci.go.kr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젊은 세브란스, 영동세브란스병원 1983-2005』 (200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영동세브란스병원10년사편찬위원회편, 『영동세브란스병원10년사』(연세대학교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1996)

3. 연구논문

강규숙, 「서백림(西伯林) 사회와 한국 간호원」, 『대한간호』 17(3), 1978
김기순, 김일순,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보험 도입이 농촌 의료이용양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5(1), 1979
김조자, 「서독주재 한국간호요원의 발전을 위한 취업실태 조사연구」, 『대한간호』 14(2), 1975
나혜심, 「독일의 대한개발원조사 연구: 미제레오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35, 2017
나혜심, 「독일의 대한개발원조와 한인 여성의 노동이주-개발원조 담론과 그 실체 사이에서」, 『독일연구』 28, 2014
대한영양사회편집부, 「영동세브란스를 찾아서」, 『국민영양』 93, 1986
박재원,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보건대학논문집』 7, 1983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2015
이경록, 「신촌 연세의료원의 건설에 관한 연대기적 기초조사」, 『연세의사학』 25(1), 2022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39, 2015
이태준, 「한국의 지역사회 의학」, 『한국가톨릭의료협회지』 7(2), 1976
이태준, 「한국의 지역사회의학-의료인의 의학 및 의료에 관한 의식구조, 의료체제의 기본구조 및 이를 위한 의료 전달기능」, 『한국농촌의학회지』 2(1), 1977
정다혜, 「서독의 대한(對韓) 개발원조와 1970-80년대 보건의료지원의 성격」, 『의료사회사연구』 10, 2022
정용서, 「세브란스, 신촌시대를 열다-사진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25(1), 2022

www.kci.go.kr

Abstract

Yeongdong Severance Hospital and Public Loans from West Germany: A Crossroads Moment in Solving Medical Problems in Korea

Kim Young-soo*

In this paper, I aim to focus on the process through which Yonsei Medical Center introduced public loans from to establish the Yeongdong Severance Hospital in Gangnam, Seoul, and established a local medical delivery system that encompasses the surrounding areas. In this process, West Germany laid down the practice of public medical care and the re-employment of Korean nurses returning from West Germany as conditions for providing loans. The Yeongdong project contained 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which I aim to analyze.

The emphasis on organizing local medical projects has been an important health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since the1970s, but it was also important for West Germany to provide overseas loans.. In addition, the issue of the re-employment of the Korean nurses returning from West Germany can be said to constitute special circumsta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the opening of the Yeongdong Severance Hospital, an efficient medical delivery system centered on the Yeongdong area was established. It presented an ideal model as a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medical demand facing Korean society. It is also meaningful that Yeongdong Severance Hospital proposed specific measures for the re-employment and re-education of returning Korean nurses dispatched to West Germany.

The opening of the Yeongdong Severance Hospital had many implications

*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Medical History,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www.kci.go.kr

for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Korean government solved the pending medical issues of the time. The background is that, unlike the foreign aid , foreign loans began to be introduced in the medical field, adding a new driving force to the Korean medical field in the late 1970s.

Keywords: Public Loans, Medical Loans, West Germany, Gangnam Severance Hospital, Yeongdong Severance Hospital, Yeongdong Project, Local Medical Delivery System, Korean Nurses dispatched to West Germany

www.kci.go.kr